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6. 2. Vol. 22

■ 농정이슈

배합사료 가격결정체계 문제점 및 동향

■ 정책브리핑

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

■ 연구지원

201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

■ 현장여론

최근 농업·농촌에 대한 현장여론

농정이슈

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금주의 핫 이슈

〈배합사료 가격결정체계 문제점 및 동향〉

- **[축산농가, 사료가격 가장 큰 부담]** 축산농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 높아 사료가격 인상은 축산농가 경영에 직접적 타격, **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한 사료수급가격안정 필요**

【배합사료 가격결정체계 문제점】

- **[배합사료 판매가격 제각각]** 유통체계* 및 가격할인 방식 다양화**로 인해 같은 유통채널로 비슷한 양 구매해도 사료가격 차이 발생
※ 사료업체가 농가에 직접 공급, 대리점·농협 통해 공급
※※ 가격할인 혹은 사용장려금·출하장려금 단체의 경우 사무실 운영비 보조
- **[사료가격 결정체계 불투명]** 사료업체들은 공장도 가격 공개하지 않고, 사료 가격 기준가 없어 사료가격 제각각 책정
※ 농가별 구매 물량이나 서비스 제공의 질, 거래 상황에 따라 사료가격 할인
- **(외상거래 시 농가에 큰 부담)**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고율의 이자는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
※ 일반적으로 여신 거래 시 월 1.5~2% 이자 발생, 연간 최대 24% 금리 발생
- **[사료단가, 부익부 빈익빈]** 사료구매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규모가 있는 축산 농가는 규모가 작은 농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료 공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

【정부노력 및 각계 입장】

- **[정부,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]** 농식품부, '14년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, 국내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규제개선 중점 추진('14.3.12일)
※ i) **제품별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 등 비교표 공개로 농가와 업체 간 공정한 가격 결정 유도**, ii) 국제 선물가격에 기반한 사료원료 수입가격 지수 개발로 사료 업체의 원료구매 시기 결정 지원 등
- **[사료업체 입장]** 환율 전망 어렵고, 주원료인 옥수수를 제외한 배합사료의 기타 원료비 상승으로 사료가격 인하에 회의적
- **[축산단체 입장]** 최근 국제곡물가격 검토 결과 전반기에 사료가격 인하요인 발생, 사료가격 인하 촉구

자료 : 축산신문(2014.3.12. / 4.28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5.19. / 5.29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으로 농가 사료비 3,600억 원 및 곡물 수입액 4,500억 원 절감」(2014.3.12.)

WTO(세계무역기구)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

[농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,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]

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, 국민 여론·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

- (일시 및 장소) ' 14.6.12.(목), 14:30~17:10, 양재동 aT센터
- (주요 논의사항) 쌀 관세화 문제, 단체/협회/업체 및 개인 의견 청취
- (참가신청) 공청회 방청·발표·질의 희망 시 농식품부·산업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·제출

자료 : 중앙일보(2014.5.27.) / 농민신문(2014.5.30.)

참고 : 농식품부 공자·공고_「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」(2014.5.27.)

<WTO 「무역원활화 협정」 발효 위한 준비절차 진행>

○ [WTO 『무역원활화 협정』 발효 위한 WTO내 준비절차 진행 중] 제9차 WTO 각료회의(* 13.12.3~7일, 발리)에서 타결된* WTO 『무역원활화 협정』 발효를 위한 WTO내 준비절차가 현재 진행 중

※ ① 무역원활화, ② 농업, ③ 개발·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대한 합의문 채택(발리 패키지)

- (발효) 무역원활화 협정문 확정(* 14.7월) → 발효 위한 제반 국내 절차 진행(* 15.7월)*

※ 회원국의 2/3가 협정문 수락하면 발효 예정

- (주요내용)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조치 등

○ [한국, WTO에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(Category A) 통보*] 협정 확정 일환,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은 『무역원활화 협정』 조항별 이행 계획을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

※ 5.30일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 4개국 통보(홍콩, 멕시코, 코스타리카, 한국)

※ 산업통상자원부,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『무역원활화 협정』 준비위원회(5.26~28일)에 대표단 파견, 협정의 조속한 발효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

<무역원활화 협정상 이행의무의 분류: A, B, C 의무>

- (Category A) 협정발효 즉시 이행
- (Category B)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 이행
- (Category C)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 이행 및 원조 등을 통한 능력배양 필요
- ※ 국가별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준비상태가 상이함을 배려한 협상의 결과

○ [기대효과] 우리나라는 동 협정문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 없고, 협정 발효 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 수출여건 개선

※ 우리나라 실질 GDP 1.5~3.9% 증가, 수출 4.3~7.4% 증가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'13)

- (여타 개도국 동참 유도) 한국의 의무이행 통보는 여타 개도국 동참 유도해 「무역원활화 협정」의 조속한 발효에 기여

자료 : 한국경제TV(2014.5.29.) / news1-뉴스와이어NEWSis-데일리안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-아시아투데이-아주경제-연합뉴스-이투데이-파이낸셜뉴스(2014.5.30.)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WTO, 『무역원활화 협정』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- 우리나라, 개도국의 협정 이행 의무(Category A) WTO에 통보 -」(2014.5.30.)

<농식품부,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개최, 5.28일>

○ [' 13년 농정성과와 과제 및 ' 14년 핵심추진계획 점검] ' 14년 주요농정계획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 보고

<2014년 농정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>

- (3대전략) ① 경쟁력 제고, ② 소득복지 향상, ③ 수급유통 개선
- (9대 핵심과제) ① 6차산업화, ② ICT·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, ③ 개방화 대응과 수출 확대, ④ 농가 소득안정장치의 강화, ⑤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, ⑥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, ⑦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, ⑧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, ⑨ 국제농업협력 및 남북농업협력 강화

○ [정부 현안 대응방향 논의] 쌀 관세화 유예 종료, FTA 추진동향, AI 발생현황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국민공감위 위원들에게 설명·의견 수렴

※ 국민공감농정위원회란? 농업·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하고자 '13.4월 출범한 이래 '14년 5월 현재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95차례 회의 진행, 6개 분과위원회 구성 ① 행복 농촌, ② 희망 농업, ③ 신뢰받는 식품 소비자, ④ 국민사랑 축산, ⑤ 스마트 농정, ⑥ 유통특별분과

- (쌀 관세화 유예 대책 논의) 올해 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정부는 WTO 통보일정(9월 말) 감안, 6월 중 입장 결정, 쌀 농가의 불안감 완화·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등을 위해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·추진

- (FTA 동향)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 등 영연방 FTA의 금년 내 타결 가능성 및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진행상황 등 동시다발 FTA 추진 동향 설명

- (AI 상황) 고창(1.16일)에서 최초 발생 이후 현재 소강국면에 접어든 AI 상황,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상황 보고

㉔ 농정이슈

자료 : MBN·YTN·세계일보·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이데일리·연합뉴스(2014.5.28.) / NEWSis·이투데이 (2014.5.29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농식품부,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개최 - 쌀관세화, FTA 대책 등 '14년 핵심현안 논의 - (가칭)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상황 등 보고」 (2014.5.28.)

〈한국 농식품부 장관-필리핀 농업부장관 양국 농업협력 방안 논의〉

- **[한국 농식품부장관, 필리핀 농업부장관 면담, 5.26일]** 서울에서 필리핀 농업부장관 (프로세스 알카라(Proceso J. Alcala))과 **농식품 수출입 현안, 양국 농업협력 증진 방안 논의**

- **(주요내용) 농산업복합단지(MIC) 사업*** 추진, 한국산 딸기와 필리핀산 열대 과일 등에 대한 수출 절차 조속히 진행해 양국 간 **농산물 교역 확대** 추진

※ Multi Industry Cluster 사업: 정부간 협력으로 대규모 부지 조성 후, 농업 생산을 비롯한 가공·유통 등 전·후방 연관 산업을 패키지로 추진

- **[양국 쌀 관세화 유예 의견 교환]** 필리핀 농업부장관, “자국 생산비 상승으로 쌀자급 달성에 어려움 예상, '17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 위한 웨이버(의무면제) 협상 추진 중”, “한국은 필리핀과 처한 상황 달라 WTO 체제하에서 추가적인 부담 없는 관세화 면제는 어려울 것”이라 언급

자료 : NEWSis·시사뉴스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(2014.5.27.) / 농민신문(2014.5.30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이동필 농식품부장관, 필리핀 프로세스 알카라 농업부장관과 양국 농업협력방안 논의」(2014.5.25.)

〈한-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〉

- **[제8차 통상추진위원회* 실무회의 개최, 5.26일]** 20여개 정부 부처 참석한 가운데 한-아세안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

※ 위원장 산업부 장관, 「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통상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 위한 정부회의체

- **(논의내용)** ① 한-아세안 FTA 추가자유화*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, ② 복수국간 서비스협정(TISA) 진행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, ③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

※ 상품협정 제15.2항에 따라 '12년 및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며, 이를 기초로 '12년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'15년 합의 목표로 추가자유화 작업계획 채택

㉔ 농정이슈

- **[한-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]** * 13.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한-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관련, 진행상황 점검, 양허수준 개선과 통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 협의

〈현재 한-아세안 FTA 양허수준〉

- (일반품목: 품목수의 약 90%) 한국·아세안 6개국 관세철폐 완료, 베트남 '18년, 캄보디아·라오스·미얀마 (CLM) '20년 철폐 완료 예정
- (민감품목: 품목수의 약 7%) 한국·아세안 6개국 '16년까지, 베트남 '21년, CLM '24년까지 관세를 0-5% 감축 예정
- (초민감품목: 품목수의 약 3%) 한국과 아세안 6개국 '16년까지, 베트남 '21년, CLM '24년까지 관세를 일부감축 의무, 일부 예외품목 존재

- **[복수국간 서비스협정(TISA) 진행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]** * 13.6월 출범한 ‘복수국간 서비스협정(Trade In Services Agreement)’ 협상 동향 관계부처 간 공유, 다자간 서비스 규범 제정의 중요성 인식,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강화

〈복수국간 서비스협상 개요〉

- DDA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라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협상(TISA: Trade In Services Agreement) 추진
 - ※ (현재 23개국 참여 중,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약 70%) 한국, 일본, 대만, 홍콩, 호주, 뉴질랜드, 파키스탄,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, EU,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터키, 이스라엘, 파라과이, 리히텐슈타인
- '12.2~'13.1월까지 준비회의 개최하여 협상 추진방향 등 논의 → '13.3월부터 구체적 문헌협의 시작 → '13.6월 회의 시 협상출범 대외 선언
- 협상 시한은 정하지 않되 가급적 조기에 협상 타결 추진
 - ※ 금년 중 5차례(2469·12월) 협상 진행 및 예정

- **[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]** 5월 TPP 각료회의('14.5.19-20) 등 최근 TPP 협상동향 및 제2차 예비 양자협의, 국회(통상대책특위) 주관 TPP 공청회 등 추진 상황 바탕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실무협의

자료 : 내일신문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조선일보(2014.5.26.) / 뉴스와이어·NEWSis·머니투데이·시사뉴스·아주경제·헤럴드경제(2014.5.27.)

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제고를 위한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 -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-」(2014.5.26.)

㉔ 농지 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

- **[농지에 지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농고 농림축산식품부-국토교통부 갈등]** 지속적인 농지 감소 상황에서 농지에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움직임에 대해 논란

※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(4.22일), 사용승인 받지 못한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기 위한 특별법으로 1년간 효력 지니는 「특별조치법 개정안」

농정이슈

- **(농식품부 입장)** 불법건축물로 우량농지훼손 우려
- **(국토부 입장)** 농지 그대로 두고 건축물만 양성화
- **(농민단체 입장)** 농지훼손 가속화, 추가적인 농지전용 확대 우려

자료 : 내일신문(2014.5.27.) / 한국농업신문(2014.5.30.)

구제역, 소해면상뇌증 등 청정국 지위 획득

- **[한국, 구제역, 소해면상뇌증(BSE, 일명 광우병) 등 4개 질병 청정국* 지위 획득]**
농식품부, 현지 대응 등을 통해 OIE 총회**에서 구제역, 소해면상뇌증(BSE, 일명 광우병)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

※ 구제역(백신접종 청정국), 소해면상뇌증(위험무시국), 가성우역·아프리카마역(청정국)

※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 총회 개최(5.24~30일, 프랑스), 158개국 500여명 참석

- **[향후계획]** 농식품부, “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”으로의 지위 전환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, 청정국 획득만큼이나 앞으로 **청정국 유지 중요성 강조,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 당부**

- **[기대효과]** 한국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, 수출가능성 확대

자료 : YTN-MBN(2014.5.28.) / 경향신문-news1NEWSis매일경제서울신문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
이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조선일보TV조선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(2014.5.29.)
/ 농민신문농축유통신문(2014.5.30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구제역, 소해면상뇌증 등 청정국 지위 획득(제82차 세계동물보건
기구 총회 결과)」(2014.5.28.)

<대미 삼계탕 수출 관련 미국 법령 공식 발효(5.27일)>

- **[삼계탕, 미국수출 법절차 마무리]** 미 농업부(USDA), **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
제품 수출가능 국가 목록에 등재한 법령* 공식 발효(5.27일자, 미국 현지시간)**

※ ‘한국의 대미 가금제품 수출 가능’(Elig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ort
Poultry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) 법령

- **(입법절차 완료)** ‘04년부터 추진된 국산 삼계탕 對美 수출 위한 미국 내 입
법절차 모두 완료(동 법령은 3.26일 공포)
- **(한-미, 삼계탕 수출개시 위한 잔여 행정절차 협의 중)** 국내 수출희망 작업장*
등록절차 및 수출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 완료 후
수출개시 예정

※ 수출희망업체(4개소): 하림(도축·가공장), 마니커(가공장: 마니커, 도축장: DM푸드)

농정이슈

- **[6월 중순~7월 초 판매 가능]** 잔여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6월 중~7월 초
수출선적 및 미국 내 판매 가능

자료 : SBS(2014.5.28.) / NEWSis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(2014.5.29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對美 삼계탕 수출 관련 미국 법령 공식 발효(5.27) - 우리나라를
미국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 목록에 등재 -」(2014.5.28.)

통계청, 2014년 1/4분기 온라인쇼핑동향 발표

- **[‘14년 1/4분기 온라인쇼핑동향]** 총 거래액 10조4,680억 원(전년 동기대비
16.6%↑),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2조8,930억 원(전년 동기대비
156.6%↑)

※ 전분기 대비 거래액: (온라인쇼핑) 1.3%↓, (모바일쇼핑) 22.8%↑

- **[상품군별 거래액 동향, 전년 동기대비] (증가)** 여행 및 예약서비스(25.6%),
스포츠 및 레저용품(24.8%), 아동 및 유아용품(22.1%), **농산물(3.4%)** / **(감소)** 사무
및 문구(-13.5%), 소프트웨어(-12.5%)

※ 전분기 대비: (증가) 서적(28.4%), 꽃(20.4%), 컴퓨터 및 주변기기(17.0%) / (감소) 스포츠
· 레저용품(-21.8%), 의류·패션 및 관련상품(-14.3%), **농산물(-3.5%)**

- **[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]** 여행 및 예약서비스(19.1%), 의류·패션 및 관련상품
(19.1%), 생활·자동차용품(10.7%)이 높은 편이며, **농산물**의 경우 **온라인 2.8%,
모바일 2.2%**로 낮은 편

자료 : 한국경제TV(2014.5.27.) / news1·뉴스와이어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주경제이투데이
조선일보(2014.5.28.)

참고 : 통계청 보도자료_「2014년 1/4분기 온라인쇼핑동향」(2014.5.27.)

정책브리핑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30.)

□ 개요

- [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, ' 14년 제1차 회의 개최, 5.29일] 농식품부, **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* 및 폐업지원금** 지급 결정**
 - ※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: 「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(90%)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(90%)을 보전하는 제도
 - ※ ※ 폐업지원제도: 「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 지원하는 제도
- (조사·분석기관) 한국농촌경제연구원(FTA농업인등지원센터)
 - ※ FTA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장관이 지정('12.3.8)
- (조사대상 품목) 모니터링 품목 42개*, FTA 이행에 따라 국내 영향이 커 장관이 직권조사 지정한 품목(축산물 9, 원예특작 17, 곡류 등 16)
- (조사분석 결과)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5개 품목,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요건 모두 충족

〈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: 3가지 요건 동시 충족 시 발동〉

- i)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(직전 5년(' 08~' 12) 수입량 중 최고·최저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) 초과
- ii)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(직전 5년(' 08~' 12) 수입량 중 최고·최저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×수입피해발동계수) 초과
- iii) 평균가격이 기준가격(직전 5년(' 08~' 12) 가격 중 최고·최저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×0.9) 미만으로 하락

- [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, 식량작물에 첫 발동] 201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, 식량작물에는 처음 지급, 6월 중 선정된 품목 고시, 농가 신청 받아 연말까지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 거쳐 지급 예정
 - ※ 다만,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,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 신청 받아 지급신청 총액 파악 후, 11월경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

□ 주요내용

- [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] 조, 수수, 감자, 고구마, 한우송아지
 - ※ 식량작물(조·수수·감자·고구마), 시설비 등 투자비용 크지 않고, 단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제외
- [수입기여도* 확정]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 확정(조 0.0%, 수수 13.4%, 감자 36.0%, 고구마 0.55%, 송아지 31.0%), 이는 직불금 지급액 결정 시 적용**
 - ※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
 - ※ '13.1월 지원위원회에서 직불금 지급액 산정 시, 국내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 제외하고,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 적용하기로 결정
- [FTA 폐업지원금 지원 품목] 한우송아지, 현행 법률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폐업지원 대상품목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 고려한 조치
 - ※ 폐업지원 대상은 번식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, 번식우 농가가 사육하는 모든 소를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.
- (폐업지원 규모) 다만,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,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 순위 감안,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

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요건: 다음 각호 요건 모두 충족 시 품목 선정〉

1.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가.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,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 곤란한 품목일 것
 - 나.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
 - 다. 그 밖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

- [향후계획] FTA 확대에 따라 농축산물 피해 증가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**농가 피해가 최소화**되도록 **FTA 보완대책 추진**

돼지유행성설사병 피해 농가, 가축재해보험금 지급

☐ 돼지유행성설사병(PED virus감염증) 발생 농가, 가축재해보험금 지급

- **[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]** 지난해 12월부터 경북,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설사병(PED virus감염증),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피해 발생
- **[PED 피해 농가, 34억 원 가축재해보험금(추정) 수령]** 농식품부, '13.12월부터 경북,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설사병(PED virus감염증)으로 **피해 입은 60농가**에 손해평가 거쳐 34억 원 가축재해보험금(추정) 지급*
※ 보험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 농가, 평균 56백만 원 수령
- **[기대효과]** 돼지질병위험특약에 **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.6% 가입**, 보험금 수령으로 **경영안정에 기여**

〈가축(돼지)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(5.20일 현재)〉

- (보험가입) 총 4,121건(783만두), 2조 1천8백억 원 가입
- (돼지 질병위험 특약) 총 521건(74만 여두), 375억 원 가입(12.6%)
※ (농협손보) 506건(73만 여두)/369.3억 원 / (LIG손보) 15건(8500여두)/5.7억 원
- (보험금) 총 196건, 114억 73백만 원 지급
- (지급예정) 돼지유행성설사병(PED)으로 60건, 34억 14백만 원
※ (농협손보) 54건/29억 75백만 원 (36건/20억 37백만 원 지급) / (LIG손보) 6건/4억 39백만 원
- (돼지 가축재해보험) 일반재해 (풍수해, 설해 및 화재), 질병위험(전염성위장염/TGE, 돼지유행성 설사병/PED, 로타바이러스감염증/Rota virus), 축산휴지위험, 전기적장치위험 보장

- **[정부, 가축재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]**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·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영위기 회피·분산 위해 축산농가들 가축재해보험 적극 가입으로 재해 대비 당부
※ (농업시설물·시설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) 매년 상(5~6월)·하반기(10~11월)
※ (가축 및 부대시설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, 16축종) 연중 가입 가능

〈가축재해보험 사업개요〉

- (도입연도) 1997년 / • (사업예산) 528억 원('14년)
- (지원금액) 가축재해보험료의 50%(정부지원) + 50%(자부담)
- (보험목적물) 가축 16종* / • (보장내용) 축종별 보장내용(사가의 80%~100%까지 지급)
※ 소, 말, 돼지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벌, 토끼, 관상조, 오소리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26.)

「2014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」 추진계획 확정·발표

☐ 농식품 산업 발전 위한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 발굴·홍보

- **[2014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‘추진계획 확정·발표’]** 농식품부,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 발굴·홍보 ⇒ 농식품 산업의 발전 유도
- **(5개분야 선별)** 원예농산물, 전통식품, 건강기능성식품, 일반식품, 외식
※ 6.10일까지 지자체 추천으로 후보 브랜드 모집
- **(추진일정)** 1차평가(각 시도, 5.15~6.10) → 2차 평가선정(농정원, 6.11~8.19)
→ 파워브랜드 시상 및 전시·판매(9월초)*
※ ‘2014 대한민국식품대전’ 기간 중 대통령상 등 시상(총 22장: 대통령상 1, 국무총리상 1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0), 총 3,800만 원 부상
- **[평가 주요내용]** 지역의 우수 브랜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1차 평가 실시 →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, 지자체가 추천한 브랜드 대상으로 **종합평가* 진행**
※ (서류평가) 브랜드 경쟁력, 조직화, 브랜드 성장성
※ (인지도평가) 전국 주요도시의 소비자, 시장 종사자, 유통업체, 학교급식 영양사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 실시
※ (현장평가) 브랜드의 시장성, 경영체 적합성, 유통관리 등 계량지표와 정책 수용도
※ (제품평가) 가공식품의 디자인·크기·편리성·기호도·향·맛·질감
- **[지원계획]** 최종 선별된 파워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**방송홍보, 직거래 장터 전시·판매, 온라인 쇼룸몰에서 ‘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’ 운영**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브랜드 파워 높일 수 있도록 지원
※ ('13년 선정된 21개 브랜드) 1개월간 온라인 마케팅 통해 총 16억 원 판매실적 ↑
- **[향후계획]** 브랜드 파워는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, 지속적인 우수 농식품 브랜드 선발을 통해 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27.)

조류인플루엔자(AI) ·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연장 운영

□ 주요내용

- [농식품부, AI·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, ' 14.6월까지] 최근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및 북한 구제역 발생(1.8. / 1.16. / 3.14.) 상황 감안, AI·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
※ (당초) '13.10월~'14년 5월까지 → (연장) '14.6월까지
- (유사 시 강력한 초동대응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) 연장된 기간 동안 AI 재발 방지 위한 '차단방역' 과 구제역 청정국 유지 위한 '사전예방' 에 초점
- (운영방식) 연장기간 동안 농식품부에 설치된 가축방역상황실 유지, 국민의 불편 최소화 위해 이동통제초소, 거점소독시설은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탄력적 운영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30.)

연구지원 201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

자료 : 통계청(2014.5.30.)

□ 개요

- [조사목적]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
※ (조사기간) 2013.1.1.~2013.12.31. / (조사대상 및 표본농가수) 7개 축종, 1,400가구
- [' 13년 축산물생산비] 전년대비 (증가) 송아지 4.2%, 우유2.9%, 육계2.8% / (감소) 한우비육우 -6.2%, 육우 -1.9%, 비육돈 -1.2%, 계란 -3.6%
- [' 13년 축산물 순수익] 전년대비 젖소, 산란계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비육돈, 육계는 감소, 기타 축종은 약보합세

□ 주요내용

- [송아지 생산비, 마리당] 3,392천 원, 번식률 하락, 자가노동비·사료비 증가로 전년대비 4.2% ↑
※ 번식률(%): ('12) 72.7 → ('13) 71.1(-1.6%p)
※ 자가노동비 단가(원/시간): ('12) 13,096 → ('13) 13,932(6.4%)
- (한우번식우 ' 13년 마리당 순수익) -1,465천 원(' 12년 -1,424원),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총수입은 증가하였으나, 사육비 > 총수입
※ 송아지 산지가격(천원/암 6~7개월 마리): ('12) 1,713 → ('13) 1,845(7.7%)
- [한우비육우 생산비, 100kg당] 901천 원, 송아지가격 하락에 따른 가축비 감소로 전년대비 6.2% ↓
※ 4~7개월령 송아지가격(천 원/마리): ('10) 2,385 → ('11) 1,748 → ('12) 1,634 → ('13) 1,794
- (' 13년 한우비육우 마리당 순수익) -573천 원(' 12년 -916원), 한우가격 하락에도 사육비 감소로 전년보다 양호하나 사육비 > 총수입
※ 한우수컷 경락가격(원/거세우 지육kg): ('12) 14,750 → ('13) 13,973(-5.3%)
- [육우 생산비, 100kg당] 664천 원, 송아지가격 하락에 따른 가축비 감소와 출하 시기 조정으로 출하체중이 줄어 전년대비 1.9% ↓
※ 분유떼기 송아지가격(천 원/마리): ('11) 376 → ('12) 251 → ('13) 179
※ 사육일수(일)/판매시체중(kg): ('12) 617/721 → ('13) 607/713

연구지원

- ('13년 육우 마리당 순수익) -1,344천 원('12년 -1,360원), 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생산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우가격 하락에 기인 전년에 이어 보합세 지속
※ 육우 경락가격(원/거세우 지육kg): ('12) 8,715 → ('13) 7,815(-10.3%)
- [우유 생산비, 1당] 807원, 가축상각비, 사료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.9%↑
※ 초산우 산지가격(천 원/마리): ('08) 2,236 → ('09) 2,166 → ('10) 2,543 → ('11) 3,766 → ('12) 3,759 → ('13) 3,213
※ 사료가격(농협·조합·일반사료 평균, 원/kg): ('12) 485 → ('13) 503(1.1%)
- ('13년 젖소 마리당 순수익) 1,768천 원('12년 1,629원), 원유 농가 수취가격 상승으로 총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8.5%↑
※ 원유 수취가격(낙농진흥회, 원/ℓ): ('12) 981.4 → ('13) 1,022.9(4.2%)
- [비육돈 생산비, 100kg당] 290천 원, 사료비, 분뇨처리비는 증가하였으나 새끼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가축비 감소해 전년대비 1.2%↓
- ('13년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) -28천 원('12년 9원), 돼지가격 하락으로 총수입 크게 감소(-12.9%)하여 전년대비 37천 원 감소
※ 돼지 경락가격(원/탕박 kg): ('12) 3,974 → ('13) 3,570(-10.2%)
- [계란 생산비, 10개당] 1,183원, 병아리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가축비 감소로 전년대비 3.6%↓
※ 산란 실용계(병아리) 산지가격(원/마리): ('12) 1,150 → ('13) 1,056(-8.2%)
- ('13년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) -314원('12년 -5,944원), 계란가격 상승으로 총수입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, 사육비 > 총수입
※ 계란 산지가격(원/특란 10개): ('12) 1,130 → ('13) 1,436(27.1%)
- [육계 생산비, kg당] 1,400원, 병아리 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축비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.8%↑
※ 육용실용계(병아리) 산지가격(원/마리): ('12) 406 → ('13) 547(34.7%)
- ('13년 육계 마리당 순수익) 61원('12년 96원), 육계가격 상승으로 총수입은 증가하였으나, 사육비 증가폭이 더 커 전년대비 36.5%↓
※ 육계 도매가격(원/kg): ('12) 3,260 → ('13) 3,409(4.6%)

연구지원

식품산업 연구개발 (R&D) 현황조사 결과

개요

- [「2013 식품산업 연구개발(R&D) 현황조사」 발간] 농식품부-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기반 구축 위해 식품기업의 연구개발 실태 조사*
※ 식품기업 연구개발 관련 인력, 투자 및 성과, 기술보유현황, 장비, 인프라
- (조사대상 및 방법) 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’에 등록된 식품기업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1,136개(1,114 기업체),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방문면접*
※ 이 중 조사에 응한 637개소 이용, 사후에 전체 가치 부여하여 추정한 결과

주요내용

- [일반현황] 연구개발조직 보유 식품기업 매출, '10~'12년 기간 중 30% 증가, 전체 식품제조업체 매출액 증가율 18%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
※ ('10) 424,238억 원 → ('11) 501,661 → ('12) 551,581

연구개발조직 보유 식품 기업의 업종별 분포

단위: 개, %

업종	사업체수	연구개발조직 보유기업수	업종별 비중	연구개발조직 보유 비율
전체	-	1,114	100.0	-
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,662	109	9.8	6.6
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	3,097	81	7.3	2.6
과실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,938	95	8.5	4.9
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	3,319	15	1.3	0.5
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	147	26	2.3	17.7
곡물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	5,598	46	4.2	0.8
기타 식품제조업	36,688	485	43.6	1.3
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	604	23	2.1	3.8
알콜음료 제조업	849	29	2.6	3.4
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	405	37	3.3	9.1
식품관련 기타산업	-	168	15.0	-

주: (식품관련 기타산업) 담배도매업, 음식점업, 음식점업, 연구개발업,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포함
(Base)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한 식품 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 전담조직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중복응답 발생. 본조사 모집단 1,114개 기업, 해당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전담 조직 1,136개

연구지원

- **(국내의 제품 경쟁력 확보)** 식품연구개발 기업이 소비자 기호 변화 및 국제 식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식품 개발
- **(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연구개발조직 보유 1.7%)** 식품제조업체 54천여 개소 (통계청, '12년 기준) 중 946개 연구개발조직 보유
- **[식품 R&D 인력]** 연구개발(R&D) 종사자 절반이 연구개발 인력 부족하다는 의견 (48.9%), 기업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문인력 확충 지원 방안 강구 필요
 - **(식품 R&D 담당 인력 증가 추세)** 식품 연구개발(R&D) 담당 인력은 '13.9월 기준 6,934명(기업당 6.2명), 연평균 10% 수준 증가 추세
 - ※ 식품 R&D 인력: ('10) 5,333명 → ('11) 6,111 → ('12) 6,681 → ('13.9월 말) 6,934
- **[연구개발투자 현황]** 식품기업 연구개발(R&D) 투자규모는 '10~'12년 기간 중 **10% 이상 증가 추세***인 반면 **매출액 대비 투자비중은 0.69%로 전체 제조업체**의 1/5 수준**에 불과
 - ※ ('10) 2,782억 원 → ('11) 3,196 → ('12) 3,819
 - ※※ 3.09%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연구개발활동조사, 2012
 - (연구개발 조직 형태) 기업부설 연구소 62.3% > 연구개발 전담조직 37.7%
 - (연구개발 업무 비중) 신제품 개발 35.9% > 제품개선 21.7% > 품질/안전관리 19.3%
- **[연구개발 성과]** 신제품·개선제품 등 기술개발 제품의 매출 비중 지속 확대
 - ※ (신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) ('10) 11.5% → ('12) 14.9%
 - ※ (기존제품 개선제품) ('10) 9.8% → ('12) 11.6%
 - **(기술개발 성공 요인)** CEO 의지 49.3% > 기술개발 경험 15.6% > 인적자원 11.2% > 관리능력 8.4%
- **[향후계획]** 식품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지속 확대
 - **(‘식품 연구개발(R&D) 중장기 발전계획’ 적극 반영)** 이번에 실시한 식품산업 연구개발 현황 조사 결과 분석,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인 ‘식품 연구개발 (R&D) 중장기 발전계획’에 적극 반영
 - ※ 농식품부,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‘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’(3.27일) 통해 식품 연구개발 정책 추진 방향 발표한 바 있음.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5.29.)

KRE리porter 현장여론

현장여론 최근 농업·농촌에 대한 현장여론

자료 : KRE 리porter통신원을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

조사개요

- 수집기간: 2014.5.01 ~ 5.25 (총 48건)
- 수집대상: KRE리porter, 현지통신원
- 수집방법: 온라인사이트, 이메일, 팩스, 우편 수집
- 주요내용

〈최근 농업·농촌에 대한 현장여론〉

-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
- 기상이변에 대비한 피해 방지 대책 필요
- 국내 농산물의 관료 확보 및 가격에 대한 보장 필요
- 농업관련 각종 규제 완화해야
- 대규모 관정사업, 지역축제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막아야
- 귀농 및 영농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해야
- 농촌, 농민을 위한 정부정책 개선 필요
- AI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기해야
- 도시주변 유흥토지나 임야에 경계림 조성 필요

현장여론

- **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**
 - 2014.5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따르면, 농축산업의 신규인력은 1,850명으로 제조업의 11,0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임.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함으로 외국인 신규인력을 증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.<김경태, 경기 용인>
 -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. 농업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음. 농촌에서는 시설을 기계화, 현대화 등 인력을 최소화하는 자동화를 연구하여 심각한 일손 부족을 대비해야 할 것임.<오형동, 전남 해남>

- 경남 밀양 지역은 적과작업이 한창이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해마다 치솟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음.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거나 부족한 일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.<김현자, 경남 밀양>

○ 기상이변에 대비한 피해 방지 대책 필요

- 농사를 잘 지어 놓아도 기상재해에는 속수무책임. 하루에 두서너 차례 시간을 정하여 TV 등의 주요매체를 통한 농업 기상 예보를 알려주면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.<최영호, 충남 부여>
-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생산자인 농업인이 책임지기엔 어려움이 많은 실정, 정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.<유영조, 강원 영월>
- 최근 모든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농업인들을 위한 월간 단위의 일기예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됨.<유영조, 강원 영월>
- 모내기 위해 하우스에 못자리를 설치한 후 관리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뜰묘*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임.<유영순, 충남 서산>
※ 상자육묘에서 이유기가 지난 후 주야간 기온차 심하고 상토의 pH 높으며 통기와 투수성이 불량일 때 발생하기 쉬우며, 뿌리의 기능이 쇠퇴되어 2~3일 후 쇠약하여 마르는 생리 장애
- 따뜻한 겨울 날씨, 이른 개화, 늦추위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음. 농업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예방조치를 해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됨.<김인남, 경북 상주>

○ 국내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가격에 대한 보장 필요

-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대형마트의 농산물 코너에 국내산 농산물을 집중 진열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.<김병철, 경남 김해>
- 올해 마늘의 생산량 늘고 중국산 수입 물량도 많아져 국내산 마늘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음. 마늘을 포함한 모든 채소 가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.<김상우, 제주 서귀포>
- 콩 파종시기를 앞두고 파종을 해야 할 것인지 걱정임. 정부차원에서 국산 콩 판로를 보장해 주기 바람.<김종근, 전남 순천>
-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대책, 농약농자재 가격의 안정과 정부의 지원 대책, 영농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연기, 냉해 피해농가의 지원 대책 등 이번 6.4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 주기 바람.<최영호, 충남 부여>

- 양파, 마늘, 감자 수확을 앞두고 과잉생산에 대한 걱정이 많음. 또한, 수입 과일의 증가로 국산 과일의 소비 감소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.<임충빈, 경기 안성>

○ 농업관련 각종 규제 완화해야

- 농촌 여성 생활 개선을 위한 복지 바우처 카드가 있지만 나이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. 40-6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농촌의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함.<김경태, 경기 용인>
-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이 바뀌고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늘어나면서 신규 신청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함.<김경태, 경기 용인>

○ 대규모 관정사업, 지역축제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막아야

-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필요한 대규모 관정사업을 정책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실시하였음.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.<유영순, 충남 서산>
-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한 예산낭비가 큼. 마을단위의 지역 특산물 축제들을 하나로 묶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임.<박향숙, 전남 완도>

○ 귀농 및 영농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해야

- 지자체에서 귀농인 유치를 위한 홍보는 많지만 귀농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음. 귀농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과 지식전달, 정착을 위한 지도가 잘 이루어져 귀농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가적, 개인적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임.<김인남, 경북 상주>
- 최근 농업경영의 문제는 투자대비 수익금액이 좋지 않은 것임. 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. 농업교육, 농업경영에 관한 실질적·현실적 지원이 필요함.<박현근, 강원 횡성>

○ 농촌, 농민을 위한 정부정책 개선 필요

- 정부와 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, 특히 소농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함.<김종근, 전남 순천>
- 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 개선과 농자재 지원,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, 정부 농협에서 수매·계약재배 하는 방법 등 정부차원에서 농업·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함.<배병열, 전남 무안>

KRETI리포터 현장여론

- 바닥으로 치달는 농산물 가격에 농촌과 농업인이 흔들리고 있음. 이에 관련 기관에서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.<윤석구, 경북 군위>
- 생산비에 못 미치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임. 소비자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.<김용덕, 경기 남양주>
- 농촌관광, 도농교류, 체험학습 등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함.<임충빈, 경기 안성>

○ AI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기해야

- 5월이 다 지나도록 AI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양계농가에서는 여전히 불안함. 축산 농가는 방역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적정 사육 규모를 갖추는 등 자격 기준 강화하여 AI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<조성문, 충북 음성>

○ 도시주변 유희토지나 임야에 경제림 조성 필요

- 도시주변의 유희 토지나 임야에 경제림 장기수를 심어 도시민의 휴식, 산책 공간 마련, 생활권 도시림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버려지는 땅도 없을 것이고 쾌적한 휴식처가 될 것임.<김병철, 경남 김해>

○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각보다 재활용 필요

- 재선충 방제 위한 다양한 노력(살포제 등)들 중에 감염된 소나무에 대한 소각보다 에너지화, 퇴비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임.<고정식, 제주 제주시>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
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